투혼, 우리는 해냈다… "이젠 알프스 넘자"

■ 한국-프랑스전 '한 편의 드라마'

프랑스 초반 파상공세 전반 9분 앙리가 선제골
설기현 투입 전술변화…후반 36분 극적 동점골

'투혼(鬪魂)', 그리고 극적인 드라마였다.

아드보카트호가 '아트사커' 프랑스와 기적같은 막판 무승부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라이프치히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전반 9분 티에리 앙리에게 첫 골을 잃었으나 후반 36분 박지성이 동점골을 뽑아내 '레 블뢰' 프랑스에 1-1 무승부를 기록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이로써 1승1무(승점 4)가 된 한국은 프랑스(2무), 스위스(1무), 토고(1패)를 제치고 조 수위를 굳게 지켰다.

한국은 오후 11시 도르트문트에서 열릴 스위스-토고전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16강 진출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한국은 프랑스와 역대 전적에서 2연패 끝에 천금같은 무승부를 따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13일 토고전에서 쓴 스리백 대신 포백카드를 빼들었다.

태극호는 라이프치히경기장 한쪽을 완전히 점령한 붉은악마들의 함성 속에 결전에 나섰지만 지나치게 긴장한 탓인지 초반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앙리를 원톱으로 놓고 중앙에 지네딘 지단, 좌우 측면에 플로랑 말루다와 실뱅 윌토를 배치한 프랑스는 킥오프 휘슬과 동시에 공세를 퍼부었다.

뼈아픈 첫 실점은 곧 터졌다.

전반 9분 다시 중앙을 파고든 윌토르가 아크 정면에서 김남일을 앞에 놓고 오른발 슛을 날렸고 김남일의 발에 맞은 볼은 골지역 앞으로 흘렀다.

양쪽 중앙 수비수 사이에 있던 앙리는 문전으로 흐른 볼을 낚아챈 뒤 이운재의 움직임을 보면서 왼발로 가볍게 터치 슛을 때렸고 볼은 그물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후에도 프랑스의 파상공세는 계속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후반 이을용 대신 설기현을 투입하고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 전술 변형을 꾀했다.

여전히 경기가 풀리지 않자 김상식을 부상으로 쓰러진 이호 대신 투입하고 이천수를 뺀 다음 '해결사' 안정환을 내보내 동점골을 노렸다.

토고전과 마찬가지로 안정환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약간 처지고 박지성이 다시 사이드로 빠져 4명의 공격수로 공세를 폈다.

프랑스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진 후반을 노리겠다는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략은 토고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막히게 들어맞았다.

'늙은' 프랑스는 '젊은' 태극전사의 거침없는 공세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후반 25분부터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후반 34분 김동진이 헤딩슛으로 반격을 편 한국의 감격적인 동점골은 후반 36분 터져나왔다.

중원에서 기회를 엿본 박지성은 아크 쪽으로 볼을 몰고가다 오른쪽 측면의 설기현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설기현은 측면을 날카롭게 파고든 뒤 지체없이 크로스를 올렸다.

설기현의 크로스는 먼 골대 쪽으로 길게 넘어왔고 조재진이 이를 헤딩으로 문전에 떨궈주자 박지성이 골문으로 쇄도했다.

박지성은 바운드된 볼을 오른발 끝으로 재치있게 건드렸고 볼은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프랑스 골키퍼 파비앵 바르테즈의 손끝을 피해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한국은 후반 막판 앙리에게 1대1 찬스를 내줬지만 이운재가 온몸으로 신들린 방어막을 펴 귀중한 승점 1을 손에 넣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프랑스전 '최고의 스타'

기적같은 동점골로 '6월의 전설'을 가능케 한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한국 축구의 희망.

아드보카트호를 '레 블뢰' 풍랑에서 구해낸 그는 잉글랜드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체력과 감각적인 돌파, 위치선정으로 '산소탱크' '습격자' 등 다양한 별명으로 불린다.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축구는 안방 호랑이'라는 국제 축구계의 비아냥을 잠재울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던 박지성은 지난 13일 토고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상대 수비수의 반칙을 유도, 이천수의 프리킥 선제골을 이끄는 등 맹활약했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터트리며 극적인 무승부 드라마 연출의 주역이 됐다.

막판 동점골
박·지·성
몸 던져 선방
이·운·재

공격에서 박지성이 있었다면 수비에서는 골키퍼 이운재가 있었다. 이운재는 이날 잇따른 선방으로 '레 블뢰'에 패배하기 직전에 아드보카트호가암초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전반 시작 9분만에 프랑스의 간판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이운재는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아드보카트호를 구했다.

1994년 3월 미국과 평가전에서 처음으로 A매치에 데뷔, 올해로 국가대표 13년차를 맞는 이운재는 이날 경기로 A매치 99번째 출전했다.

24일 스위스와 조별 리그 3차전에서 100번째 A매치 출전으로 '센추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이운재는 이번 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 100번째 경기 뿐 아니라 101번째, 102번째 경기도 이번 월드컵에서 치러낼 태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잘했어 19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젠트랄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G조 한국-프랑스전에서 박지성이 동점골을 성공시킨 후 한국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드보카트 감독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19일 오전(한국시간) 2006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프랑스에 1-1로 비긴 뒤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 축구무대에서 작은 나라인 한국이 프랑스라는 강국과 비긴 데 만족한다"며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반에 프랑스의 개인기와 압박에 밀려 고전을 했는데 후반부터 경기력이 나아져 비길 수 있었다"며 "예상 외로 조 1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후반부터 팀 전술이 잘 먹혀들어가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다"며 "선수들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전반에 대한 평가는.

▲토고전과 마찬가지로 전반에는 0대 1로 밀렸다. 그러나 후반 선수교체 이후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었다.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팀 전술도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G조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경기결과를 축하받고 싶고 즐기고 싶다. 물론 그 이후 스위스전에 대비할 것이다.